

신태용의 시계는 독일전에 맞춰졌다

와일드카드 손흥민·석현준·장현수 포함 18명 확정...리우 본선 향한 로드맵 공개



올림픽추구대팀팀 신태웅 감독이 2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교보컨벤션홀에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나설 18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했다. 신 감독은 1차 목표인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선 독일과의 2차전이 분수
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2회 연속 메달 획득을 향한 올림픽추구대팀의 힘찬 전진이 시작됐다.

김진한 기자 kwangshin00@donga.com

석현준, 유럽평가전때 파워·집중력 검증
‘독일과 최소 무승부’ 리우 본선 시나리오
손흥민도 피지전 휴식 후 독일전에 투입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붉은 함성으로 물들일 18명의 태극전사들이 정해졌다. 5일(한국시간) 체코와의 원정 평가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린 석현준(FC포르투)은 와일드카드(24세 이상) 마지막 한 장을 차지했다.

신대용 올림픽추진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교보컨벤션홀에서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18명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3명의 와일드카드로는 손흥민(토트넘)과 장현수(광저우 푸리)에 이어 석현준이 발탁됐다. 신 감독은 “마지막까지 석현준과 황의조(성남FC)가 경쟁했다. 석현

준은 이달 초 스페인, 체코와의 유럽 원정 평가전 당시 유럽선수들을 상대로도 파워가 좋았고,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신 감독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러 포지션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을 불러 모았다. 원톱 황희찬(잘츠부르크)과 함께 공격 2선기의 축진 귀환장(수원삼성), 문창건(부용 스타리스) 등이 예상대로 신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이날 또 국내서 열린 4개국 올림픽대표 친선대회에서 득점력까지 뽐내며 신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규백(정보현대)과 함께 정승현(울산현대)이 최종 수비라인을 맡는다.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동준(성남FC)도 주전 수비장 자리를 지켰다.

올림픽대표팀은 줄곧 수비 약점을 지적받아왔다. 이에 신 감독은 당초 수비수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를 와일드카드로 낙점했지

만, 소속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신 감독은 "5월 제출한 35인 예비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을 뽑을 순 없다. 와일드카드의 (선택)폭이 좁아 공격수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수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량실질점 한 적도 없고, 무실점 경기도 많다. 공격수가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미드필더진의 공간침투나 공격수와의 합작 플레이가 좋다. 스코틀랜드 공격수 2인에서 골을 많이 넣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공격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올림픽대표팀은 피지, 독일, 멕시코와 함께 본선 조별리그 C조에 속했다. 약체로 평가받는 피지를 제외하면 독일은 유럽, 멕시코는 북중미의 강호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다. 이에 신 감독은 첫 상대 피지를 꺾어 우위를 점

한 뒤 독일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선 독일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소속팀의 친선경기를 치르고 7월 31일 브라질 알바도에서 울림피다프에이트에 합류하는 송훈민은 8월 5일 피치전에 나서지 않는다.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를 풀 뒤 8월 8일 독일전에 출격한다. 신 감독은 "피치전에선 숨길 것은 숨기고, 독일전에 '올인'한다. 피치를 잡고 독일을 상대로 이기거나 비겨 멕시코전을 준비하면 예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올림픽대표팀은 다음달 4일 임시 소집해 1박2일간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각자의 소속팀으로 돌아가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리우행 비행기에 오른다. ▶와일드카드 한류 석현준의 각오 3면

두산-NC 빅뱅...약점을 지워라 두산-불안한 필승조·NC-중심타선 침묵 약점

1위 두산과 2위 NC가 28일부터 잠실구장에서 재경쟁한다. 두 팀은 5경기마다, 주중 3연전 결과에 따라 두산이 선두권을 굳히지 못할지, NC가 턱밑까지 추격을 할지 경쟁되는 빅매치다. 그러나 현재 두 팀의 컨디션은 썩 좋지 못하다. 두산은 굳건한 선발진이 있지만 불펜이 흔들리고 있다. NC는 나성범~태입스~부석민~이호준으로 이어진 중심타선이 주춤하고 있다.

불안요소를 없애는 팀이 KBO리그 전반기 최대 빅매치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두산, 필승조 정재훈-이현승 어쩌나

두산은 최강의 선발진을 앞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다. 1번부터 9번까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강타선도 큰 힘이다. 그러나 뒷문을 막아줘야 할 셋업맨 정재훈과 마무리 이현승이 흔들

렸다. 일단 정재훈은 너무 많이 더졌다. 27일까지 37경기에 등판해 46.1이닝을 소화했다. 권혁(42경기 64이닝), 송창식(40경기 54이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경기출장이다. 3일 잠실 SK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현승 대신 마무리 보직을 소화했다. 그럼에도 20홀츠, 2세이프, 방어를 2.53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36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다. 두산 김

태형 감독이 "이름에 투구수 50개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지만 "나 이 때문에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 현승은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는 10일 잠실 롯데전에서 복귀했지만 7경기에서 2패·2세이브·2볼론세이브·방어를 9.82를 기록했다. 현재 두산 불펜에 돌을 대체할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다.

●NC, 차갑게 식어버린 나테박이 타선
NC는 6월 15연승을 달리면서 '나테박이 타선'의 위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주 5경기 1무4패를 할 동안 나테 박이 타선은 타율 0.164(67타수 11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중심타선이 침묵하자 공격이 답보상태가 됐다. 더 큰 문제는 분위기가. 프로야구에는 '연승 후 연패'라는 속설이 있지만, 연패가 길어지면서 팀은 악화로 돌아갔다. 게다가 두산은 NC와 3연전에 대승턴 니퍼트·장원준·마이클 보우덴 3선발을 맞았다. 중심타선이 강력한 선발들을 골라하지 못하면 자칫 연패가 길어질 수 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고기손만두



김치손만두



메밀사각고기만두



수수전병



오징어먹물만두



솔잎만두



카레만두



수수부꾸미



메밀왕만두

쫄깃한 감자피와 자연에서 찾은 재료만을 사용한 웰빙 별난 만두!!

모든 제품은 국내산으로
본사에서 100% 공급함으로써
마진률이 좋습니다.

골라먹는 재미에 매장마다 매출이 엄청납니다!!

만두류 20여가지 이상

튀김류 5가지 이상

사이드 메뉴까지

전문 주방장업이
누구나 신규창업 O.K
업종전환 O.K

본사직영 물류 System으로 당일배출



수불갈비만두



왕만두국



왕만두

(튀김류)
피자스틱 / 김치불고기스틱
갈비만두 / 군만두 / 치즈스틱



(SBS 백년손님 자기야에 소개된 웰빙만두)

사계절 사이드메뉴: 각종만두국, 마약김밥, 칠판면, 눈꽃빙수, 떡만두국, 에스프레소 외 다수



정주전병



냉면



마약김밥

별난만두 카페

체인점문의 02)3280-2300